

12-32 (통권 제 503호)

2012. 8. 31.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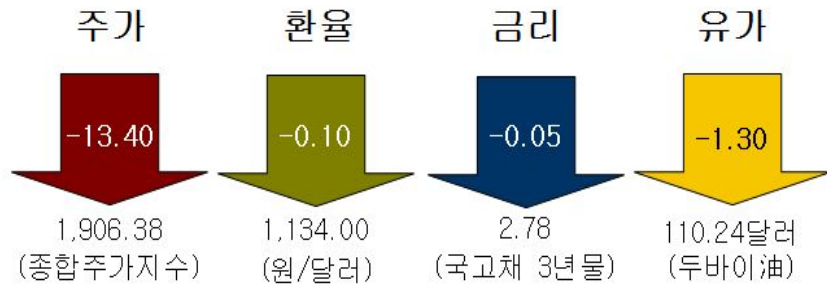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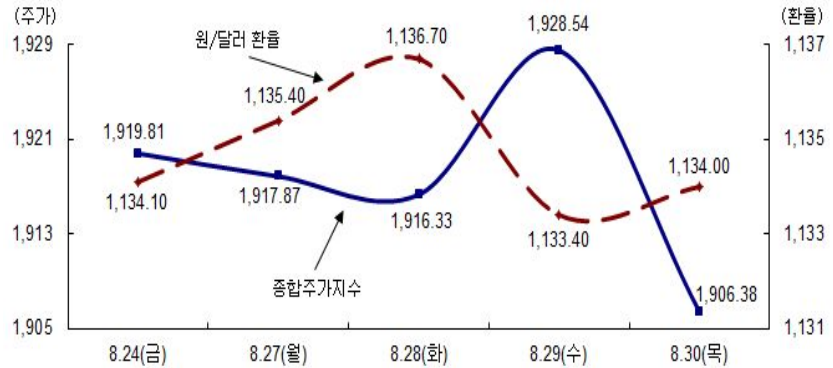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최근 수출 급감의 영향과 대책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8.24~8.30)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최근 수출 급감의 영향과 대책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0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최 성 근 선임 연구원 (2072-6223, csk01@hri.co.kr)
이 준 협 연구 위원 (2072-6219, sododuk1@hri.co.kr)

Executive Summary

□ 최근 수출 급감의 영향과 대책

■ 수출 감소세 심화

2012년 수출증가율(1.1~8.20일)이 -1.6%를 기록하면서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8월 수출증가율(1~20일까지)은 전년동기대비 -11.5%로 2009년 8월 -20.9%를 기록한 이후 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편, GDP에 대한 수출의 성장기여도도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여 수출 감소에 따르는 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최근 수출 감소의 특징

(지역별) 선진국에 이은 對신흥국의 수출 감소가 심화되고 있다. 세계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아세안 등 신흥국 수출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상반기 수출증가율이 1.5%에서 7월에 -5.2%로, 아세안은 상반기 9.7%에서 7월 -4.5%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품목별) 선박, IT 업종의 수출 둔화에 이어 호조세를 보이던 자동차와 석유제품, 철강 등의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자동차의 경우 2012년 상반기 15.7%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했으나, 7월 들어서 -4.0%로 급락했다. 석유제품과 철강도 2012년 상반기에 11.1%, 4.3%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선전했으나, 7월 들어 -11.5%, -4.9%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 최근 수출 감소의 배경

첫째, 세계 경기의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중국경제 경착륙 가능성, 신흥국 경기 침체 등으로 세계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면서 대외 수출여건 악화가 지속되었다. 둘째, 중국의 對유럽 수출 감소에 따른 우회 수출이 감소하였다. 우리의 對중국 수출구조는 중국에서 가공하여 제3국에 수출하는데 필요한 중간재와 자본재 위주로 되어있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중국의 對유럽 수출 경기가 급랭하면서 우리의 우회 수출실적도 악화되는 동조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수출단가와 환율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출품 단가의 변화를 보여주는 수출단가지수는 2012년 6월 현재 104.9p로 1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편 수출단가 하락에 더하여 환율마저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수출 여건이 악화되었다. 넷째,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면서 수출 환경이 더욱 악화되었다. 우리 제품의 경쟁력과 점유율이 증가하자 선진국에서 반덤핑관세 및 세이프가드 등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수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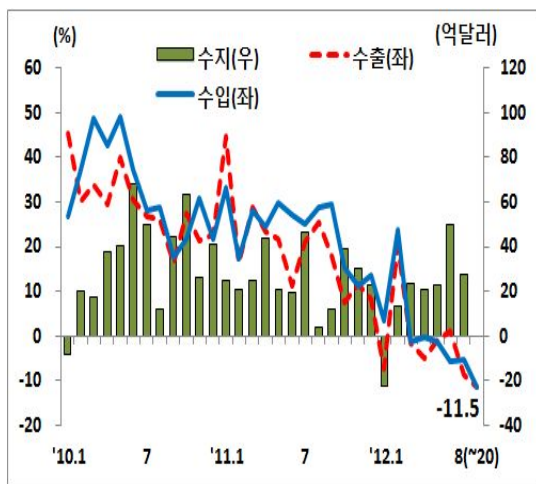
■ 파급영향과 시사점

2012년 하반기에도 수출 감소세의 지속으로 작년말 정부 전망치에 근거할 때보다 실질 GDP는 약 17.1조원(2011년 GDP의 1.4%)이 감소하고, 고용은 28.1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수출 둔화에 따르는 국내 경제의 충격과 회복세 지연이 우려되므로 수출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수출 경기 둔화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수출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수출 주력 품목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새로운 수출 주력 품목을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새로운 수출 시장 및 틈새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FTA를 적극 활용하여 수출 경기 둔화에 대비해야 한다. 넷째,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무역 분쟁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

1. 수출 감소세 심화

- 2012년 하반기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증가율이 급감하면서 수출 감소와 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증대
 - 2012년 수출증가율(1.1~8.20일)이 -1.6%를 기록하면서 수출의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음
 - 8월 수출증가율(1~20일까지)은 전년동기대비 -11.5%로 2009년 8월 -20.9%를 기록한 이후 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
 - 1~7월까지의 수출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0.8%를 기록한 데 이어, 8월 수출증가율의 감소폭이 커지면서 전체 수출의 감소세가 심화될 것이 우려
 - 한편 내수 경기의 둔화로 수입증가율(1.1~8.20일)도 하락세를 나타내어 0.1%를 기록하고 있으며, 무역수지는 90.6억달러 흑자 기록
 - GDP에 대한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2012년 2/4분기 1.8%p로 2009년 3/4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
 - 2011년 1/4분기 성장기여도는 8.4%p를 기록했으나 2012년 2/4분기 현재 1.8%p로 성장기여도가 크게 하락
 - 향후 세계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는 등 대외 여건 악화가 지속될 경우 수출 경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
 - 특히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향후 수출 경기 침체에 따르는 성장률의 하락이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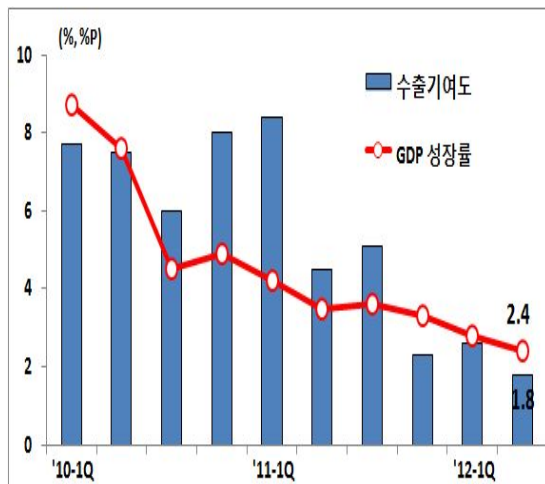
< 수출입증가율 및 무역수지 추이 >



자료 : 무역협회.

- 주 : 1) 2012년 8월은 20일까지 자료 기준
-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 분기별 수출의 성장기여도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2. 최근 수출 감소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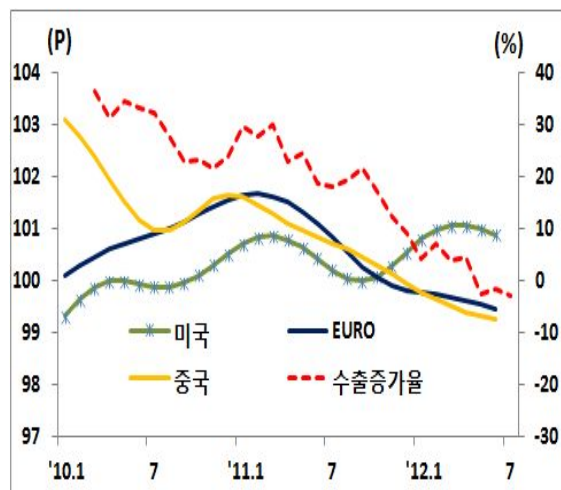
○ (지역별) 선진국에 이어 중국, 아세안 등 對新興국 수출 급감

- 유럽 재정위기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그동안 호조세를 보였던 중국과 아세안 등 신흥국의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
 - 가장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의 경우 2011년 14.8%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했으나 2012년 상반기 수출증가율이 1.5%로 하락한 데 이어 7월에 -5.2%로 감소세로 전환
 - 아세안의 경우 2012년 상반기에 9.7%의 수출증가율로 호조를 보였으나, 7월 들어 -4.5%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고, 브릭스도 2012년 상반기 -1.9%에서 -4.5%로 증가율의 감소폭 증대
 - 한편 유럽은 2011년 상반기 -19.1%, 7월 -9.8%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도 상반기에 10.4%에서 7월에 0.4%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
- 유럽 재정위기의 지속 등으로 세계 경기 회복세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
 - 유럽과 중국의 경기선행지수가 99.4와 99.3을 기록하며 기준치인 100을 하회함으로써 향후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
 - 미국의 경기선행지수도 연초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지난 4월 101.1p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향후 경기 흐름이 불투명

< 국가·지역별 수출 비중 및 증가율 >
(%)

	비중	증가율(전년동기대비)		
		2011	2012 (1~6월)	7월
중국	23.3	14.8	-1.5	-5.2
아세안	14.0	35.0	9.7	-4.5
브릭스	29.7	17.5	-1.9	-9.9
미국	7.1	12.8	10.3	0.4
일본	5.9	40.8	2.4	-1.2
유럽	10.0	4.1	-19.1	-9.8

< 주요국 경기선행지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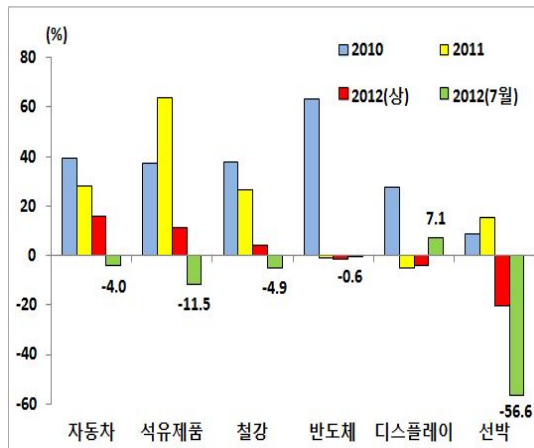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자료 : OECD, 무역협회.
주 : 수출증가율은 3개월 이동평균.

○ (품목별) 선박, IT의 수출 감소에 이어 호조를 보이던 자동차와 철강, 석유제품의 수출 감소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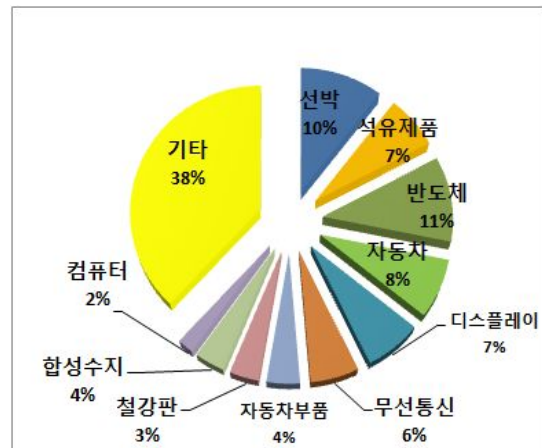
- 선박, IT 등의 주요 수출품의 수출 감소세가 심화
 - 선박의 경우 유럽 재정위기의 타격으로 인해 수출증가율이 2011년 15.2%에서 2012년 상반기 -20.2%로, 7월에는 -56.6%로 급락
 - 디스플레이와 반도체는 2011년 -4.9%, -1.1%에서 2012년 상반기에 -3.8%, -1.6%로 증가율의 하락세 지속
- 그동안 호조세를 보여온 자동차와 석유제품, 철강 등의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
 - 자동차의 경우 대외경기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2012년 상반기 15.7%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했으나, 7월에 -4.0%로 크게 하락
 - 석유제품과 철강도 2012년 상반기에 11.1%, 4.3%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선전했으나, 7월 들어서 증가율이 -11.5%, -4.9%로 큰 폭으로 감소
- 현재 상위 10대 수출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해 대외경기 악화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
 - 향후 주요 수출품목들의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일부 품목의 수출 감소가 전체 수출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주요 수출 품목의 증가율 추이 >



자료 : 무역협회.
 주 : 1) 품목 구분은 MTI 3단위 기준.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 10대 수출 품목의 수출 비중 >



자료 : 무역협회.
 주 : 2011년도 기준.

3. 최근 수출 감소의 배경

○ 세계 경기의 회복 지연

- 세계 경기의 회복세도 지연되면서 신흥국의 경기도 동반 하락
 -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2/4분기 성장률이 1.5%로 둔화되고 실업률은 7월에 8.3%로 재상승
 - 유럽 경제성장률은 2012년 1/4분기 0.0%, 2/4분기 -0.2%로 경기 부진 지속. 산업생산과 소매판매의 개선세가 미약하고 실업률이 6월에 11.2%로 급등
 - 중국의 2012년 2/4분기 성장률이 7.6%로 2010년 4/4분기 9.8% 이후 6분기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며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등 내수의 하락세 지속

○ 중국을 통한 對유럽 우회 수출 감소

- 유럽 경기 침체로 중국의 수출증가율이 급감하면서 중국을 통한 반제품 및 가공 수출도 크게 감소
 - 우리의 대중국 수출구조는 중국에서 가공하여 제3국에 수출하는데 필요한 중간재와 자본재 위주로 되어있어 중국의 수출과 동조화 현상 발생
 - 중국의 대유럽 수출의 감소세가 지속되면 7월 수출증가율이 -13.5%로 급락했으며, 우리의 7월 대중 수출증가율도 -5.2% 감소

< 주요국의 경제지표 추이 >

구분	2011 (연간)	2012				
		1/4	2/4	6월	7월	
미국	성장률	1.8	2.0	1.5	-	-
	산업생산	4.1	1.4	0.6	0.1	0.6
	소매판매	8.0	1.6	-0.2	-0.7	0.8
유럽	성장률	1.5	0.0	-0.2	-	-
	산업생산	3.6	-0.4	-0.3	-0.6	-
	소매판매	-0.6	0.4	-0.1	0.1	-
중국	성장률	9.2	8.1	7.6	-	-
	산업생산	13.7	11.6	9.5	9.5	9.2
	소매판매	17.1	14.9	13.9	13.7	13.1

자료 : Datastream, 중국인민은행.
 주 : 미국, 유럽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 중국의 국가별 수출증가율 추이 >



자료 : 중국해관총서, 무역협회.
 주 :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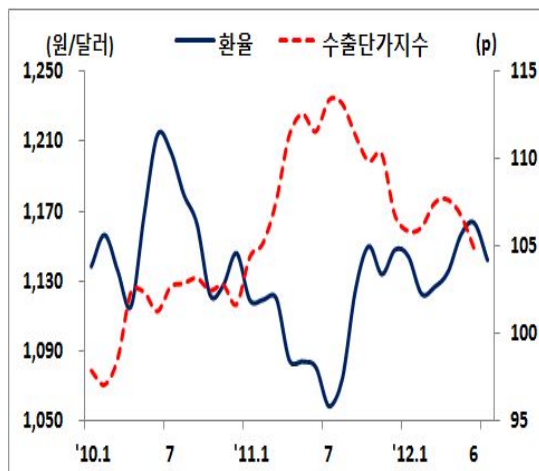
○ 수출단가 및 환율 하락세

- 최근 수출단가지수의 하락이 지속되면서 수출액이 감소했고, 환율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
- 수출품 단가의 변화를 보여주는 수출단가지수는 2012년 6월 현재 104.9p로 1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
- 이는 5·6월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격의 하락분이 화공품·석유제품·철강제품 등의 수출단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
- 한편 최근 환율이 6월 평균 1,164원에서 7월 평균 1,142원으로 하락한데 이어 8월에는 1,130원대로 하락하는 등 원화가치의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

○ 선진국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 우리 제품의 경쟁력과 점유율이 증가하자 이에 대한 선진국에서의 수입 규제 등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수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8월 현재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반덤핑·상계 관세·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는 122건으로 2011년의 106건을 상회
-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 국제특허 소송 건수도 2009년 154건에서 2011년 278건으로 2년만에 80.5% 증가
-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애플의 특허소송과 프랑스의 한국 자동차에 대한 반덤핑 조사 촉구 등 향후 수입규제조치 강화로 관련 산업의 수출 타격 불가피

< 수출단가지수 추이 >



자료 : OECD, 무역협회.
주 : 환율은 증가기준 월평균치임.

<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 공세 사례 >

	내용
미국	- 세탁기 :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 - 초고속 변압기 : 반덤핑 판정 - 아라미드 섬유 : 소송중 - 스마트폰(삼성전자) : 소송중
프랑스	- 자동차 : EU에 수입규제 요청
일본	- 전기강판 : 1조 4,000억대 소송제기
캐나다	- 탄소강관 : 반덤핑 잠정 관세
중국	- 폴리실리콘 : 반덤핑 조사 중

자료 : 내외신 종합

4. 파급영향과 시사점

- (파급영향) 2012년 수출 감소세의 지속으로 기존의 정부 전망치에 근거할 때보다 실질 GDP는 약 17.1조원 감소하고, 고용은 28.1만명 줄어들 것으로 추정됨
 - 정부는 작년말에 2012년 수출이 연간 7.4%증가할 것으로 전망¹⁾했으나, 대외 여건의 악화 지속으로 2012년 수출증가율은 1.7%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전망치의 하락으로 수출은 기존 전망보다 약 28.7조원 감소하고, 이에 따라 실질 GDP는 17.1조원(2011년 GDP의 약 1.4%), 고용은 28.1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
 - 2012년 수출에 의해 유발되는 부가가치는 기존 정부 전망치에 근거할 때 약 323.9조원이었으나 수출 둔화로 인해 부가가치는 17.1조원 감소한 306.8조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
 - 한편 기존 정부 전망치에 근거하면 약 531.4만명의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으나 수출증가율의 감소로 28.1만명 축소된 503.3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
- (정책 과제) 향후 수출 둔화에 따르는 국내 실물 경제의 충격이 우려되므로 수출 회복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함
 - 수출 금융의 강화 : 수출 경기 둔화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
 - 조선, IT 등 수출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대해 수출입 은행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
 - 또한 국내 수출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위해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보험과 보증 공급을 확대
 -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수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 해외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 사절단 파견 및 수출 상담회 개최

1) 기획재정부, “2012년 경제전망”, 2011. 12. 12.

- 를 통한 새로운 바이어 발굴을 지원
-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내수시장 개척 지원과 중국의 신성장 산업을 선정하여 관련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확대
- **수출 주력 품목의 다변화** : 기존의 수출 주력 품목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새로운 수출 주력 품목을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
 - 기존의 10대 수출 주력 품목의 품질 제고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수출 단가를 높이고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
 - 수출 주력 품목 이외에 차세대 주력 품목을 선정,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향후 기존의 수출주력 업종의 경쟁력 약화에 대비
 - **수출 지역의 다변화** : 새로운 수출 시장 및 틈새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FTA를 적극 활용하여 수출 경기 둔화에 대비
 - 중국에 대한 지나친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경기 둔화 속 상대적으로 경기 호조를 보이는 지역을 선정하여 신수출 시장을 개척
 -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의 교역에서 관세 혜택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FTA의 대한 활용도를 극대화하며, 중남미, 중국, 일본 등 새로운 국가들과의 FTA를 전략적으로 추진
 - **무역 분쟁 대비** : 특히 분쟁 발생 또는 선진국의 보호무역 성향이 부각될 경우를 대비.
 - 수출 모니터링 및 기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분쟁 발생시 효과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
 - 국가 차원에서 통산 관련 전문가와 인력을 확충하고 외교자원을 총동원하여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

경제연구본부 최성근 선임연구원 (2072-6223, csk01@hr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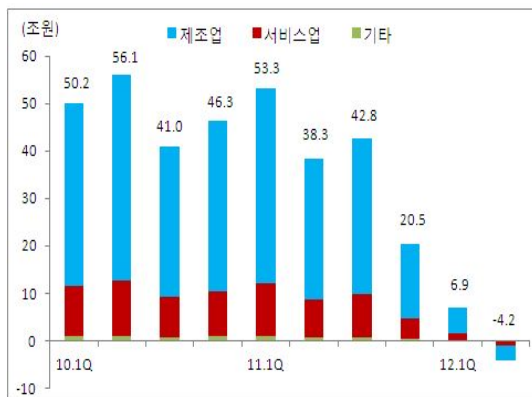
이준협 연구위원 (2072-6219, sododuk1@hri.co.kr)

<보론> 수출의 생산, 고용, 부가가치 창출 추이

○ 2010~2011년 수출이 생산과 고용 증가를 이끌었으나, 2012년 2/4분기에는 생산·고용 감소를 낳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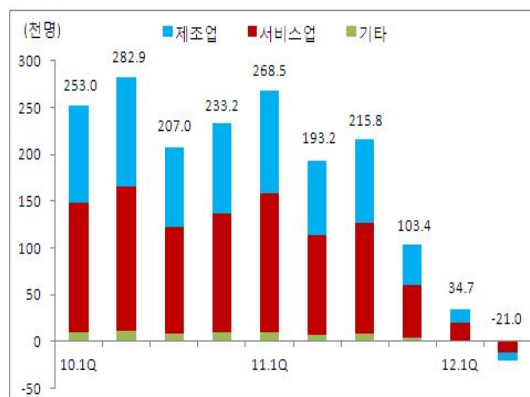
- 생산유발액 : 재화 수출 증가(전년동기대비)로 인한 직·간접적인 생산유발 효과는 2010~2011년에 각각 193.6조원, 154.9조원에 달했으나, 2012년 1/4~2/4분기에는 각각 6.9조원, -4.2조원으로 급락
 - 제조업에서의 생산유발액은 2010~2011년에 각각 149.6조원, 119.7조원이 고, 2012년 1/4~2/4분기에 각각 5.3조원, -3.2조원임
 - 서비스업에서의 생산유발액은 2010~2011년에 각각 40.5조원, 32.4조원이 고, 2012년 1/4~2/4분기에 각각 1.4조원, -0.9조원임
- 취업자 증감 : 재화 수출 증가(전년동기대비)로 인한 직·간접적인 취업자 증감 효과는 2010~2011년에 각각 97.6만명, 78.1만명에 달했으나, 2012년 1/4~2/4분기에는 각각 3.5만명, -2.1만명으로 급락
 -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증감 효과는 2010~2011년에 각각 40.2만명, 32.2만 명이고, 2012년 1/4~2/4분기에 각각 1.4만명, -0.9만명임
 -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증감 효과는 2010~2011년에 각각 53.6 만명 42.9 만명이고, 2012년 1/4~2/4분기에 각각 1.9만명, -1.2만명임
 -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서의 생산유발효과가 더 작지만, 취업유발계수가 높아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감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 수출의 생산유발액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불변가격 기준)
 주1 : 제조업은 건설업, 전력·가스·수도업 포함
 기타는 농림수산업, 광산업 포함

< 수출의 취업자 증감효과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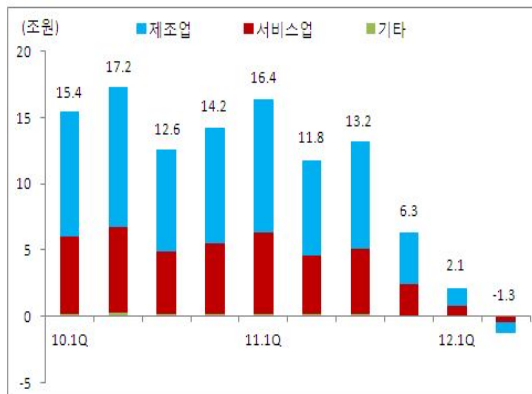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불변가격 기준
 주1 : 제조업은 건설업, 전력·가스·수도업 포함
 기타는 농림수산업, 광산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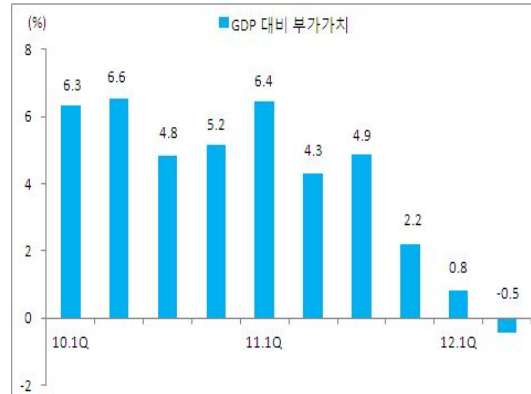
○ 2010~2011년 수출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 상승으로 GDP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2012년 2/4분기에는 부가가치가 마이너스로 돌아섬

- 부가가치유발액 : 재화 수출 증가(전년동기대비)로 인한 직·간접적인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010~2011년에 각각 59.5조원, 47.6조원에 달했으나 2012년 1/4~2/4분기에는 각각 2.1조원, -1.3조원으로 급락
 - 제조업에서의 부가가치 유발액은 2010~2011년에 각각 36.4조원, 29.1조원에 달했으나, 2012년 1/4~2/4분기에는 각각 1.3조원, -0.8조원으로 급감
 - 특히 전기전자기기의 부가가치 유발액은 2010~2011년에 각각 12.6조원, 10.1조원에 달했으나, 2012년 1/4~2/4분기에 각각 0.4조원, -0.3조원으로 급감하였고, 화학제품의 부가가치 유발액도 2010~2011년에 각각 4.8조원, 3.9조원에서 2012년 1/4~2/4분기에 각각 0.2조원, -0.1조원으로 감소
 - 서비스업에서의 부가가치 유발액은 2010~2011년에 각각 22.3조원, 17.8조원, 2012년 1/4~2/4분기에 각각 0.8조원, -0.5조원임
- GDP 대비 부가가치 : GDP 중 수출 증감으로 인한 부가가치 비중이 급격히 하락
 - 2010년 수출 증가로 인한 부가가치는 59.5조원으로 GDP의 5.7%에 달했고, 2011년에도 GDP의 4.4%를 차지
 - 하지만 2012년 1/4분기에 0.8%로 감소하였고, 2/4분기에는 -0.5%로 마이너스로 전환

< 수출의 부가가치유발액 추이 >



< GDP 대비 부가가치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불변가격 기준)
 주1 : 제조업은 건설업, 전력·가스·수도업 포함
 기타는 농림수산업, 광산업 포함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불변가격 기준
 주1 : GDP 대비 수출 증감으로 인한 부가가치 증감분 비중
 주2 : 제조업은 건설업, 전력·가스·수도업 포함
 기타는 농림수산업, 광산업 포함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0년					2011					2012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3.0	3.9	3.7	2.5	2.3	1.7	0.4	1.3	1.8	3.0	2.0
유로 지역	1.9	0.4	1.0	0.4	0.3	1.4	0.8	0.2	0.2	-0.3	-0.3
일본	4.4	6.1	5.2	2.3	-0.6	-0.9	-6.8	-1.5	7.0	-2.3	2.4
중국	10.3	11.9	11.1	10.6	9.8	9.2	9.7	9.5	9.1	8.9	8.0

주: 1) 2012년 전망치는 IMF 2012년 7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8월 24일	8월 30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30	3.16	1.88	1.67	1.62	-0.05%p
	엔/달러	81.19	80.66	77.66	78.67	78.60	-0.07¥
	달러/유로	1.3350	1.4492	1.2955	1.2512	1.2509	-0.0003\$
	다우존스지수(p)	11,578	12,414	12,218	13,158	13,001	-157p
	닛케이지수(p)	10,229	9,817	8,455	9,071	8,984	-87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8	3.76	3.34	2.83	2.78	-0.05%p
	원/달러(원)	1,134.8	1,067.7	1,151.8	1,134.1	1,134.0	-0.1원
	코스피지수(p)	2,051.0	2,100.7	1,825.7	1,919.8	1,906.4	-13.4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8월 24일	8월 30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1.40	95.18	99.22	97.14	94.69	-2.45\$
	Dubai	88.80	106.75	104.89	111.54	110.24	-1.30\$
CRB선물지수	332.80	338.05	305.30	306.04	306.51	0.47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0	2011			2012(F)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6.3	3.8	3.4	3.6	2.9	3.9	3.5
	민간소비 (%)	4.4	2.9	1.6	2.3	1.7	3.3	2.5
	건설투자 (%)	-3.7	-7.1	-3.0	-5.0	1.9	2.4	2.1
	설비투자 (%)	25.7	8.9	-1.1	3.7	6.0	6.7	6.3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294	81	184	265	55	75	130
	무역수지 (억 달러)	412	153	155	308	80	116	196
	수 출 (억 달러)	4,664	2,736	2,816	5,552	2,752	3,047	5,799
	(증가율, %)	28.3	23.6	14.9	19.0	0.6	8.2	4.5
	수 입 (억 달러)	4,252	2,582	2,662	5,244	2,672	2,931	5,603
	(증가율, %)	31.6	26.7	20.2	23.3	3.5	10.1	6.9
소비자물가 (평균, %)		3.0	3.9	4.1	4.0	2.8	3.0	2.9
실업률 (평균, %)		3.7	3.8	3.0	3.4	3.5	3.1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56	1,102	1,114	1,108	1,140	1,110	1,125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